

시동 끈 화물차... 수출라인 막혔다

화물연대 총파업 삼성광주전자, 광양·목포항 물류대란 초비상

화물연대의 13일 총파업 결정에 따라 여수국가산단과 광양항, 목포항 등 전남지역 주요항만의 물류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 파업에 따라 무관하게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삼성광주전자와 대우 광주공장의 주요 수출라인이 막혔다.

삼성광주전자의 수출 물동량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 극동분회가 파업을 선언한 10일 오후, 물동량이 끊어진 삼성광주전자 인근 도로에는 시동을 끈 컨테이너 차량 80여대가 갇길에 매우고 있었다. '운송료인상'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19일부터 이날 5번째로써 농성을 돌입한 화물연대 광주지부 천막에는 운전대를 놓은 화물차주들이 20여명 모여있었다. 여기서 만난 화물차주들은 현 상황을 한 마디로 "시동만 걸면 적자"라고 표현했다.

이광원 화물연대 광주지부 2분회장은 "850여명이던 광주지부 조합원이 최근 1천여명까지 늘어났다"며 "비조합원들까지 운전대를 놓고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만 봐도 화물차주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금호타이어지회도 광산구 소촌동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금호지부와 운송료 현실화를 놓고

장협의회의 협상했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실패했다.

여수산단 업체들은 협의의 진척이 막혀 협상이 결렬된다면 오는 12일부터 총파업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산단의 긴장감도 높았다. 화물연대 전남지회는 여수산단 화물차들에게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13일부터 파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여수지역 화물연대 회원 450명은 지난 7일 여수산단 공장

장협의회의 협상했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실패했다.

여수산단 업체들은 협의의 진척이 막혀 협상이 결렬된다면 오는 12일부터 총파업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산단의 긴장감도 높았다. 화물연대 전남지회는 여수산단 화물차들에게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13일부터 파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여수지역 화물연대 회원 450명은 지난 7일 여수산단 공장

여타의 운송업체도 심정적으로 동조하거나 운송을 기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여수국가산단 화물업체들 대부분이 화물연대 총파업시 물류대란을 겪을 전망이다 가운데 삼성석유화학, 한국바스프, LG화학, YNCC 등 비교적 물류량이 많은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양=김종호기자 chkim@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10일 오후 광주시 해남산단 5분회소에서 '화물노동자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삼성광주공장과 대우 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 수출 및 내수물동량 운송 거부 방침을 밝혔다. 출정식에 참가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단가 현실화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군용 컨테이너 트럭 투입키로 한국행 '위장 결혼' 기승

물류 수송 대책 고심

나 부두 앞에서 차량 진출입을 막는 시위 등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육상운송과 건널공사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운송업체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수출물류 수송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11일 비상화물수송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한편 대체 가능한 3t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전남도는 화물연대 등의 파업에 앞서 비상수송대책 종합상황실을 도도로교통과와 화물운송량이 많은 광양시에 구성하고 1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정후식·채희경기자 who@kwangju.co.kr

전남경찰청, 브로커·중국 여성 등 100명 적발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의 증가에 따라 알선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위장 결혼 등을 통한 외국인 불법 입국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불법 입출국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여성과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 등 모두 100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한국인과 위장결혼한 뒤 한국에 입국한 진모(여·33)씨 등 중국인 여성 2명을 공중증서 원본 불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A씨 등 중국인 여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권일기자 cki@

경찰은 또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중국인 여성들과 위장 결혼을 해 준 정모(50)씨 등 한국인 남성 5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중국인 여성들은 한국인 알선 브로커에게 위장 결혼 대가로 1인당 800만~1천만원을 주고 중국 현지에서 한국 남성들과 혼인철자를 받아 위장 결혼을 한 뒤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한국 남성들은 실업자 등으로 알선 브로커들에게 200만원 가량의 수수료와 공짜 중국여행을 받고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권일기자 cki@

화재 10건 중 2건 담배꽂초가 주범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10건 중 2건은 '담배꽂초'가 화인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광주에서 올해 5월까지 발생한 화재사고 795건에 대해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69.3%에 해당하는 551건이 사소한 '부주의'가 화인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담배꽂초'가 화재를 유발시킨 경우는 159건(28.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소각'이 123건(22.3%), '음식물 조리 중'이 78건(14.2%), '불장난'이 70건(12.7%), '논·임야 태우기' 43건(7.8%) 순이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33명(사망 4명·부상 29명)과 14억7천여만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인현주기자 ahj@

A형 간염 주의보

질병관리본부는 10일 전국에 A형 간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에 대한 표본감시 결과 5월말 현재 높은 발생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국적으로 A형 간염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87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A형간염 표본감시 결과 5월말 현재 표본 의료기관 1곳당 평균 A형 간염 발생자수가 3.5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연필뉴스

전직 대통령 비자금 미끼 수억 가로챘 2명 실행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일 전직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의 상속녀를 사칭해 수억원을 가로챘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여·52)·김모(59)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및 횡수와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 등으로 미뤄 사심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씨 등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신모씨 등 초등학교 동창생과 이종사촌 등에게 195차례에 걸쳐 7억 4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

변덕부리는 날씨

6월 11일 (음 5월 8일)

구름이 많이 끼었으며, 남해안지방은 비가 온 후 오후에 개겠다.

광주	구름 많음	20~27℃
목포	구름 많음	19~25℃
여수	비 후 오후에 갸	18~21℃
완도	비 후 오후에 갸	19~22℃
구례	구름 많음	18~28℃
해남	비 후 오후에 갸	19~23℃
홍천	비 후 오후에 갸	18~23℃
순창	비 후 오후에 갸	18~27℃
영광	구름 많음	18~27℃
진안	비 후 오후에 갸	19~25℃
완주	구름 많음	19~29℃
임실	구름 많음	18~28℃
고성	구름 많음	18~28℃
진천	구름 많음	16~22℃
홍성	구름 많음	16~22℃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 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 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3.0 m
남해남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4.0 m

목포 밀물 < 08:02 썰물 < 00:44
 20:37 13:35
여수 밀물 < 02:43 썰물 < 09:13
 15:43 21:35

▲해돋이 05:17 ▲해질 19:47 ▲달돋 13:02 ▲달질 00:39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6월 11일 날씨

▷전국날씨

광주지검-광주 4개 대학 협약 지역 법률 전문가 키운다

광주지검과 광주지역 법대 대학 교수들이 지역 법률 전문가 양성에 발 벗고 나섰다.

광주지검(김사장 황희철)은 12일 오후 전남대학교 용봉홀 1층 세미나 홀에서 전남·조선·호남·광주대학교 등 광주지역 4개 대학과 '법률 분야 실무연구 교류 및 지원에 관한 협약식'을 갖는다.

그동안 검찰과 각 대학의 법학 교수들이 참여해 법률 관련 논문 발표 등을 갖는 실무연구회는 있었지만, 검찰과 대학이 법률전문가 양성 등 상호 교류 협력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맺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법학전문대학원 시행 등 형사사법 및 법률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검찰은 각 대학의 법률전문가 양성 교육 가운데 실무 과정을 지원하고, 대학은 수사·행정 참여 등을 통해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협력하게 된다.

검찰과 대학들은 이를 위해 1년 두 차례 실무연구회를 열고 검찰의 전문수사 자문위원 등 각종 위원 위촉시 전문 분야 대학교수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또 대학의 법률분야 실무교육 세미나 홀에서 전남·조선·호남·광주대학교 등 광주지역 4개 대학과 '법률 분야 실무연구 교류 및 지원에 관한 협약식'을 갖는다.

실무연구회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이는 "이번 협약서 체결을 통해 우리 법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도록 폭넓은 연구를 통해 국내 법체계와 법조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이 끝난 후에는 제5회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회의도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회 회장인 오대성 조선대 법과대학장과 한명관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인사가 이어 학술 회의에서는 ▲컴퓨터 사용 사기 죄 판례 분석 ▲사이버 스토킹 연구 ▲재정신청 범위의 확대가 헌법소원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수, 검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최권일기자 cki@

미도

正統日食

확장사업

일본의 도시 생활 방식을 배우기 위해 해외로 나가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일본어 회화, 요리,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0% 할인 (특별한 이벤트를 위한 특별)

문의: 234-0001

일중한의원

정재우 원장

김영미 원장

이철민 원장

내과, 외과, 피부과, 소아과, 노인내과, 예방의학, 재활의학, 한의학, 대체의학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1동 112-1번지 일중한의원

전화: 062-678-1075